

치 사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경인년은 우리사회와 불교계에 참으로 많은 혼란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온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시기에 남과 북은 일촉즉발의 극한 대결로 치달았고, 대량소비를 위해 산업화된 농, 축산업은 이제 수백만의 생명을 생매장하는 암울한 단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종교계 역시 편협한 종교관에 의해 발생한 일련의

종교 편향 사건으로 인해 국론의 분열은 물론 민족의 화합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지금 우리 불교계가 중대한 도전과 시련에 처해 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문화는 물론 민족문화를 경시하고,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이득을 우선시하는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불교계가 짊어진 막중한 책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하는 때 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바로 지금, 청년 불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청년들은 진부한 사고를 떨쳐내고 신선한 생동감을 불어넣는 세대들이며, 젊은 기운으로 더 먼저 변화하고 또 빠르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층들입니다. 불교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불교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사부대중 모두의 힘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불자들의 드높은

**기상과 젊은 힘이 그 중추를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련기에는 더욱 더 청년불자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청년회는 지난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청년,
스님이 중심이 되어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사회를
구현하고 인류를 구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불청의 노력과 역할은 우리 한국불교계에 젊은 피가 생동하고 새로운 기운이 충만하게 만든 활력소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금 청년 불자들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만해 스님은 언제나 청년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계 또한 청년불교가 바로서야 우리 불교가 바로 서게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인류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청년불자 여러분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또한 서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청년불교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한불교청년회 제25대 정웅정 중앙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청년불교를 위해 더욱 애써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26대 정우식 회장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년불교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위기를 한국불교중흥의 기회로 만들어 나아가는 힘찬 대한불교 청년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조계종에서도 물심양면으로 청년불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불교청년회 제 25대,
26대 이·취임 법회를 축하드리며
대불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기 2555년 1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